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51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41)	봉헌 (219)	성체 (166)	파견 (436)
---------	---------	----------	----------	----------

제1독서 | 말라 3,19-20

화답송 | 시편 98(97),5-6.7-8.9(◎ 9 참조)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 소리쳐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강들은 손뻑 치고, 산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

○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신다. ◎

제2독서 | 2테살 3,7-12

복음환호송 | 루카 21,28 참조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복음 | 루카 21,5-19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1/17	이 그레이스	고 안나	박 다니엘
11/24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2/1	유 요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2/8	이 그레이스	고 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30	\$	\$2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김 마론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1/2	유 요한/유 마리아	12/7	김 마론/ 김 헬레나
11/9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12/14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1/16	홍 마르코/ 홍 아녜스	12/21	손 아놀드/ 손 쟈마
11/23	김 요아킴/ 고 안나	12/28	이 글라라/ 장 글라라
11/30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1/4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12 월 5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첫번째 일요일 오후 7시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원회의는 12 월 1 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8:0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둘째 주 제외)

매주 미사후 친교실 에서 성경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 공동체 모임: 주일 미사 후 친교실

매달 둘째 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다음 모임은 12 월 8 일 입니다.

남가주 성당 대림 판공성사 일정

아래는 남가주 성당의 대림 판공성사 일정입니다.

12/10(화)바실성당, 12/12(목)성삼 성당, 12/16(월)성토마스 성당

12/17(화)성바오로 성당, 12/18(수)성마태오 성당,

12/19(목)백삼위 성당, 12/20(금)성아그네스 성당.

우리 성당에서는 이번 대림특강 초청강사 신부님은 없습니다.

우리 성당은 수요일을 제외한 모든날 미사 30 분 전에 고백성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이삭

거룩한 얼굴

-나혜선 요셉피나 | 성가가수, 금속공예가-

금속공예 공방을 운영하던 2015년 가을의 일입니다. 제품 디자인 샘플을 제게 의뢰하셨던 사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토리노 성 수의(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아마포) 사본 전시회’의 준비위원회에서 봉사 중인데, 수의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을 신자들이 소장할 수 있도록 ‘기적의 패’처럼 제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기존에 의뢰해 받아 본 샘플이 지도 신부님과 준비위원회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며 도움을 청하셨지만, 제 능력 밖의 일이라 처음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쓰이고 아마포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 패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조언을 구하시기에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그런 결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는 샘플 패와 이미지를 받아 들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6개월 남짓 헤아릴 수 없는 수정을 거쳐 가며 그 패를 조각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수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을 한 조각의 패로 표현한다는 것은 제 얕은 신앙이 감당하기에 너무도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깊어지면서 제가 지은 죄를 외면하는 것이 주님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 신부님께서 표현해달라 조언하셨던 ‘병사들에게 맞아서 부어오른 뺨’은 나의 손찌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업은 저와 주님이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나고 봄이 왔으며,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으나 저는 여전히 사순

중에 머물렀습니다. 원본 디자인 컨펌 자리에서 “이제 다 되었다”라는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저는 오늘 비로소 부활을 맞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완성되어 세상에 나온 ‘거룩한 얼굴’ 패는 ‘토리노의 성 수의 사본 전시회’에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들의 기도와 묵상 안에서 힘을 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가 지은 죄의 못 자국들이 고스란히 저를 찌르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 못 자국을 마주할 때마다 그때는 보지 못했던 혹은 외면했던 죄의 순간이 되살아나, 고통받으셨을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간 속에 나를 돌아보고 머물며 십자가 앞에서 통회 없었던, 못 자국들이 나를 살리신 자리였음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깨닫는 것 또한 은총이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시간뿐 아니라 저의 시련도 간직하며, 주님의 거룩한 얼굴의 빛 속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잊지 않고 청합니다.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의 빛을 비추소서.”(시편 4,7)

복음묵상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루카 21-19

(서울주보에서)